

# 자동화기기(CD/ATM기)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요인

## -전국 소재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혜원(서울대학교 지리학과, haywon@hanmail.net)

최근 수십 년 간 인류의 삶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금융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이는 금융업무의 전산화는 물론이고, CD/ATM기(이하 자동화기기)·전화·인터넷·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금융서비스 채널의 등장을 통해 나타난다.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과거 점포 위주의 단일 채널에서 탈피하여 다양화해가는 것은 단순히 금융시스템상의 변화를 넘어 금융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금융정보화에 의한 금융공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일차적 작업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채널인 자동화기기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소재 13개 은행(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2개)의 2002년 말 기준 점의 자동화기기 관련 내부 자료이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상관분석, 회귀분석, 판별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점의 자동화기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그리고 지방의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공간적 분포 패턴을 보인다. 반면, 전체 시군구의 18.5%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아직 점의 자동화기기가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점의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 둘 간의 상대적 분포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은행 점포의 분포에서 나타났던 극심한 공간적 집중성이 점의 자동화기기의 설치에서는 다소 완화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은행 점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은행 점포에 대한 점의 자동화기기의 상대적인 설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상반된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점의 자동화기기의 입지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은행 점포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점의 자동화기기 및 은행 점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경제 기반, 인구, 수요유발, 지역경제력 요인이다. 이 중 두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기반 요인은 점의 자동화기기보다 은행 점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어 인구 및 수요유발 요인은 은행 점포보다 점의 자동화기기의 분포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동화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 지역별 점의 자동화기기와 은행 점포의 상대적인 분포 차이는 대형 소매점이나 대학과 같은 수요유발 요인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